

2001. 4. 20 제6호

WFFIS Daily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WFFIS Daily

1. 누슈
2. WFFIS News
포화 속의 여성들-여성의 기억, 폭력의 재현
3. 강주, 오늘의 영화
부정한 관계
꿈
재희이야기
4. 감독과의 대화
아시아 단편경선 출품작
5. 인터뷰
니콜 페르난데즈 페레
이현승
6. 여성과 영화, 그 행복한 결함 - 김선아
나바 하이페초 감독 가족
200자 감상문
7. English Edition

■ 오늘의 영화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 1회(11:00) <부정한 관계>
- 2회(1:30) <금지된 속삭임>
- 3회(4:00) <거류>★
- 4회(6:30)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
- 5회(9:20) <러브/주스>
- 심야상영(24:00) <상실의 시대>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
<아벨리스의 커밍아웃>/<새도우 박서>

하이퍼텍 나다

- 1회(11:00) <할머니의 비밀>/<꿈>★
- 2회(1:30) <팬지와 담쟁이>/<재희 이야기>★
- 3회(4:00) 아시아 단편경선 3 <달이 지고 비가 옵니다>
<알 수 있다>/<상식>/<사이코 드라마>
<Deshabille-toi라는 이름의 비디오테이프>
<둥둥>★
- 4회(6:30) <얼어나!>
- 5회(9:20) <누슈:여성의 언어>/<역사수업>

■ 오늘의 이벤트

필라멘스

- 오후 4:00 난상토론회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
오후 7:00 한국영화 회고전 포럼 - 젠더 트러블

★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있습니다.

*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누슈 Nu Shu(女書)

캐나다/감독 양 유예청/1999/58분/다큐

"다락방에서 누슈를 쓴다네... 우리가 천 개의 문장을 수놓을 때 남동생은 천 권의 책을 읽는다네"

한때 중국보안당국으로부터 국제첩보전에 사용되는 비밀암호라는 의심을 사기도 했던 비밀의 문자 누슈는 실은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이 딸에서 며느리가 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글자이자 문화.

1980년대 들어서야 이름을 얻은 누슈는 이제는 사라져 가는 글자이다. 양 유예청 감독은 누슈의 흔적을 찾아 중국의 넓은 대륙을 더듬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영화는 기존의 중국영화들이 누슈를 볼거리로서만 치부되어왔던 것을 대신해 누슈의 놀라운 발달 정도와 누슈를 사용했던 기층 여성들의 삶을 자연스레 보여준다.

여성들의 자수문화와 변용된 한자가 만나 이뤄진 독특한 글체계 '누슈'로 그네들은 노래를 부르고 자수를 놓으며 책을 만들어 주고 받기도 한다. 여성에게 친절하지 않았던 삶, 결혼의 속박 속에서 사회나 학교로부터 배제되어야 했던 그네들의 삶은 누슈를 통해 공유되고 동시에 숨겨져 왔다. 그러나 'Life is suffer'라고 노래부르는 이들은 누슈와 함께 했던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로 기억하고 있다.

SK Telecom

쟁점 포럼 Polemics

포화 속의 여성들 : 여성의 기억, 폭력의 재현



이상이 패배하고 사고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행되는 전쟁의 포화에서 여성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여성들은 어떤 경험을 했으며 이후에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역사화한 영화는 과연 '히스토리'가 아닌 '허스토리'인가에 대한 쟁점 포럼 Polemics가 4월 19일(목) 오후 7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필라덴스 4층에서 열렸다. '포화 속의 여성들: 여성의 기억, 폭력의 재현'이란 주제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은실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쟁점 섹션 프로그램인 김선아(중앙대 영화학과 강사)씨와 양현아(동국대 사회학과 강사)씨의 발제, 토론자 한서설아(이화여대 여성학 박사과정)씨의 질의와 대답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관객들과의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쟁점 부문 5편의 상영작은 <50년 간의 침묵 50 Years of Silence>(1994/오스트레일리아), <역사와 기억 History and Memory>(1991/미국), <사망통지서 Regret to Inform>(1999/미국), <어둠의 시간 Times of Darkness>(1997/노르웨이), <급류속의 요정 Once There Was a Wild Water Sprite>(2000/독일)이고, 다음은 발제 내용이다.

▲<50년 간의 침묵>과 <사망통지서>를 보면서 양현아 동국대 사회학과 강사

<50년 간의 침묵 50 Years of Silence>는 성노예 강간 피해자인 네덜란드 여성 제니 Jan Ruff-O' Herne의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큐는 여성이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가진다는 것, 자신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의 힘을 한껏 보여준다. 이 다큐에서 제니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또한 제니의 언어는 제니 개인이 가지는 용기와 지성, 강한 Agency의 성파이기도 하다. 이러한 언어는 제니라는 여성 개인과 그녀가 속한 사회가 함께 발화하는 공동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많은 경우는 위안부 이슈를 민족적 '수치' 혹은 '오염'이라는 기호로 낙인찍으며 여성의 정절 이데올로기를 문제시하지 않은 채 민족의 자존심으로 틀지워온 '가부장적 민족주의의 의미생산 방식'에 연루되어 있다. 즉, 생존자 여성들에 대한 동결된 '피해자' 이미지는 이들을 수치의 지점으로 보고자 하는, 여전히 그 수치를 탈출하지 못한 한국사회의 사회정신적(socio-psychic) 상태를 재현하는 것일 뿐이다.

이 필름에는 몇 가지 관계성(relationality)이 작동한다. 네덜란드 여성과 일본(아시아) 남성간의 관계성과 네덜란드 여성과 아시아 여성간의 관계성이 보여진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니의 증언에 입각하여 사실주의적으로 체험을 묘사하고 재현하고 있다. 하지만 차분하고 명료한 증언을 들었음에도 그녀가 왜 50년 동안 침묵을 해왔는지, 그 트라우마의 깊이가 이 다큐에서 충분히 다루어졌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사망통지서 Regret to Inform>는 베트남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바바라 소네본(Babara Sonneborn)감독 자신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전쟁의 틀에는 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아니 그러한 여성의 배제와 타자화가 전쟁의 젠더 메카니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 여성과 미국 여성은 과연 공통적인 전쟁의 피해자인가. 공통성의 정치학 역시 중요하다.

베트남 여성들의 기억은 육체적 고통처럼 구체적인 반면 미국 여성들의 기억은 흐릿하며 상상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이 다큐는 미국내의 다양한 여성들, 또 베트남 여성들의 전쟁 체험이 말해지고 있지만 그것은 바바라로 표상되는 미국인 전쟁 미망인의 시점에서 틀 지워진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필름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것은 미국 중산층 여성을 '통해 본' 베트남 여성이다. 그래서 이 필름에서 여성(Woman)이 말할 때 여성(Women) 간에 작동하는 차이의 정치가 묻혀질까 우려가 된다.

▲여성이 (영화로) 역사를 만들어 가는 두 세 가지 방식 김선아 쟁점부문 프로그래머, 중앙대 영화학과 강사

전쟁이라는 역사적 외상을 다루는 자서전적인 페미니스트 다큐멘터리들에 대해서 크게 '여성이 국가/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전쟁의 피해자라는 보편적이고 동질적인 역사를 가질 수 있는가'와 '여성의 역사 혹은 억압된 집단의 대항 역사는 어떻게 구성되는가'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질문의 결론을 도출해 보자면 첫번째는 여성 정체성은 단일한 범주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과 국가/민족의 정체성이 교차하는 범주라는 것이다. 둘째 대항 역사 기술은 여성이 각각의 차이의 정체성 속에서 경험한 역사적 외상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자서전적인 페미니스트 실험 다큐멘터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여성들의 역사 기술이며 여성 정체성들의 교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은주>

if상, 여성신문상 신설

서울여성영화제는 올해부터 특별상 'if상'과 '여성신문상'을 신설한다. 페미니스트 저널 <if>가 주관하는 'if상'은 뉴커런츠 부문을 비롯해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된 모든 영화 가운데 <if>가 주목하는 한국신인감독에게 주는 상으로, 미래지향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작품에 수여된다.

영화를 통한 여성주의 실천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여성신문상>의 '여성신문상'은 '여성영상공동체' 부문에 출품된 작품 중 영상매체를 통해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폐막식에 열리며, 'if' 상에 선정된 작품의 감독에게는 <if> 발행인 박옥희 사장이 상금 1백만원을, '여성신문상' 수상작에게는 이계경 여성신문사 사장이 상패와 상금 1백만원을 전달한다.